

지역 소식통

고창군, 청년 토론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청년들과 청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고창군이 수행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고창청년의 바람이 담긴 참신한 청년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청년벤처연구회, 고창4H연합회, 애양청년회, 고창청년회의소 등 지역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정책제안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시간 내내 유기상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현장에서의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다양한 제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발간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대한 제국기 의병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는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 비매품)'이 발간됐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전북대학교 이재연연구소가 주관한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 학술대회' 때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하고 부록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요주의 감시 인물로 정해 관리했던 일제 감시대상 인물 중 부안 연고자, 부안 연고 의병참여자, 독립운동가 현황을 하나로 묶었다.

부안은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과 민족운동에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명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진 정읍이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다수의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안군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민족운동의 역사를 바로 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책자는 모두 6편의 논문과 부록으로 꾸며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18개소 761명 대상

정읍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요양병원·시설 18개소(요양병원 5, 요양시설 13)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7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종 시행에 앞서 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782명)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 97.3%(761명)가 접종에 동의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신 접종은 2회(1차 2월 26일~3월 31일, 2차 4월 23일~5월 31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자체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 등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접종이 어려운 시설은 관할 보건소 방문접종팀이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며, 연지동 정읍체육관에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mRNA(백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정읍체육관)는 1일 접종 횟수 600명(의사 1인당 1일 150명)을 기준으로 대기 구역, 접종 구역, 관할구역 등을 배치해 안전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시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시장이 총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실무추진반 7개 팀(백신수급팀, 시행총괄팀, 접종센터관리팀, 접종기관운영팀, 대상자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분청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한 민간 자문위원과 백신 접종 관련 자문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정읍아산병원, 의사회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분만진료비 전액지원

산부인과 이용률 증가,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개정 등 진행

고창군이 전국최초로 시도한 '분만진료비지원 사업'이 실제 산부인과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2020년부터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창군내 산부인과에 208명의 외래임원과 6710명의 외래진찰이 이뤄졌다. 특히 고창 분만산부인과 출산수는 21명으로 전년(2019년 14명) 대비 50%가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앞서 고창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응급상황 대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2015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창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창군은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을

포함한 임신·출산관련 사업에 보건소 전체예산의 15%를 웃도는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맞춤형 지원으로 92명에게 지원했고, 소득기준을 초과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산모에게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껏 준비한 임신·출생 축하용품도 199명에게 전달하는 등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요양병원·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289명 우선 접종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3월부터 지역내 요양병원 2곳, 요양시설 8곳에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20명 중 접종 동의를 한 289명(접종율 90%에 대해 1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백신 배송이 완료됨에 따라 내

달 3일 요양병원·요양시설 3곳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등을 고려해 촉탁 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현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방문 접종을 하게 된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여부상 정부터는 효능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 즈음 확정될 예정으로 군은 610여명이 추가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 의료인과 119 급급대, 역학조사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370여명도 오는 3월 중 접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백신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부안군보건소내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25일 정읍시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읍시-LX 정읍지사, 지적기준점 업무 위·수탁 MOU

707점 시에서 자체 조사 시행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 정읍지사(지사장 박명서)와 지난 24일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뜻한다.

정읍시에는 총 5,971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29점, 지적도근점 5,739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일체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은 총 5,971점 중 5,264점으로 나머지 707점은 시에서 자체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조사·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간담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점검 완료

정읍시가 안전하고 차질 없는 완벽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시는 25일 정읍시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앞서 시는 관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보건소장과 의사회, 정읍아산병원, 정읍사랑병원,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소방서, 경찰서, 정읍 35사단 등 지역 내 10개 기관 12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6일부터 시행 예정

인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협의체 역할과 각 기관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기관별 주요 역할을 보면 의사회는 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병원은 이상 반응 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또, 전북과학대학교는 간호 인력 모집을 지원하고, 소방서는 접종센터 구급차 배치와 이상 반응 발생 시 환자 긴급이송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경찰서와 육군 35사단은 접종센터 시설 보안과 순찰 지원, 백신 도난·탈취 등 비상 상황 등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